

52호, 2005, 01

책을 열며 / 새로운 10년을 맞는 평통사의 과제 / 홍근수

새해정세 좌담회 / 대담 리영희, 김민웅, 강정구, 박기학 / 정리:김현미

시론 / 2005년 민족자주운동의 과제와 전망 / 유영재

좌담/ 지난 1년 평통사가 잘한 점과 아쉬운 점 / 정리:홍보국

토론회 지상중계 / 남북한 군사력 비교:북한 군사력 우위론의 허구성 / 이철기

투쟁현장 / 농성 현장 스케치_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농성현장을 찾아 / 박인근, 김현진

참가기 / 평통사 창립 10주년 행사_평통사 10년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회원들입니다 / 박석분

평통사는 하는척 하지 않고.. / 문정현(평화바람 대표), 정리:박인근

지역평통사 탐방 / 안동평통사를 찾아 / 강석주

평화카페 / 아름다운 남자, 그 시작 이야기_모터사이클 다이어리 / 김현미

10년 이후의 평통사의 과제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새해부터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하지만, 사방을 둘러 보아도 그런 기쁜 소식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창립 10주년이 지나도록 살아있어야 했고 - 이것부터가 나쁜 소식이다 - 그래서 후원회도 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재정문제를 포함하여 나쁜 소식뿐이어서 정말 말하기 쑥스럽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후원회를 개최하여 진보적인 사람들의 지갑을 털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후원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3일(화) 평통사 후원회를 여러 회원들의 성원 하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총 3,000만원 이상의 후원비가 걷혔습니다. 우선 이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돈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코 한사람의 의지가 아닌 자주, 평화, 통일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바램이 담긴 소중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평통사는 2005년에도 이런 마음을 원동력으로 더 힘차게 달려 나갈 것입니다.

미국인은 지난 대선에서 새 대통령에 조지 부시를 재 선출하여 전쟁과 야만의 시대를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이때 여야의 단합된 모습을 보고 누구의 표현대로 나라를 팔아먹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거의 2년에 걸쳐서 투쟁했으나 용산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미국이 부르는 대로 거의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계획으로 한미간에 협상이 진행 중인데 한국 측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평통사의 새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통사는 올바른 한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믿기에 우리는 대등한 한미 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도 주한 미군은 점차적으로 철수해야 할 것이고, 지금 불평등하기 그지없는 소파도 문제지만,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주한 미군이 한반도 안전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의 지역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나 신속기동군으로 성격을 전환하는 것도 현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원리로나 상식적으로 보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조로 매년 약 1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사리에도 당치 않고 또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여 가능하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남한이 전쟁 수행능력에 있어서 북 보다 더 강성한 상황 하에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미군의 주둔이 불필요하고 통일을 바라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미군일 뿐 아니라 통일 후에는 더더구나 미군의 주둔이 필요 없기 때문에 미군은 한반도로부터 철수하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요구입니다.

전환기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세전망

날 짜 : 2004년 12월 28일

장 소 : 리영희 선생님 자택

참석자 : 평화통일연구소 명예이사장 리영희 선생님, 김민용 교수, 강정구 교수, 평통사 박기학 정책실장

정 리 : 평화통일연구소 김현미 연구위원

- 김민용 : 선생님, 주변 환경이 참 좋군요. 지난 한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리영희 : 두세 개 병을 가지고 있으니 오로지 병 다스리며 보냈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못했어요.
- 김민용 : 2004년이 지나면서 제일 중요하게 짚을 문제가 아무래도 부시 재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시가 세계정세, 특히 한반도의 기류를 모두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선의 고지를 넘어선 상황에서 정세관리의 유형이 다소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부시 2기는 몇 가지 요인에서 강경일변도로만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미국 내부에서 부시에 대한 반대세력이 절반에 이르는 힘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9·11의 현장인 뉴욕에서 전당대회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이기지를 못했거든요. 부시가 제기했던 안보정책, 군사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내부에 있고, 경기도 간단치 않고 세계 여론도 안 좋고, 이라크 전쟁도 수렁에 빠져있고 한반도에서는 전쟁 결코 안된다는 의지가 굳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군사주의적 패권체제의 강화'라는 부시의 기조는 바뀌지 않겠지만, 이를 실현시키는 방식은 일정하게 조절해내야 하는 지점에 도달한 듯 합니다. 집권 1기처럼 마구잡이 강공으로 치닫기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리영희 : 앞으로 1, 2년은 재조정 단계이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주한미군을 포함해 극동 지역의 전체 미군은 대변혁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상에 고정된 미군을 아주 유동적인 군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10가지 조약을 맺어 일본을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편입시켰거든요. 이제는 남한 군대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군사전략 속에 편입시키고 일본과 한국 사이에도 삼각형 같이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상당한 배려를 했는데 대만 문제가 침체화되면 양국의 밀월관계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인류의 70%가 미국을 반대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고립된 자기 위상을 재조정하는데 1, 2년이 걸리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기학 : 북한 핵문제에 대한 2기 부시정권의 태도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리영희 : 이라크 전쟁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생각했던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은 부시 2기에서는 일단 주춤해졌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지지가 워낙 없고 이라크 문제에 대한 미국 내외의 반발여론도 커지고 있고 미국 자신도 군사문제나 경제, 금융문제, 신네오콘 진영의 재정비도 해야 합니다. 앞으로 1년, 2년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미국에 대한 우리의 행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김민용 : 중장기적 차원으로 볼 때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결국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그 변화에 대한 전망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영희 : 어젠가 중국 국방백서에서 대만 문제를 엄중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대만에 주재시키고 있던 사실상의 국방대사 즉 군사대사를 처음으로 민간인에서 현역으로 바꾸었습니다. 미국이 대 대만 무기판매수준을 높이는 등 일련의 일들을 볼 때 부시의 네오콘들은 중국과의 일전을 위해 대만을 떼어내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와 대만 문제를 동북아 패권전략 차원에서 서로 거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부시의 네오콘 참모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중국과의 중기적 장래를 위해서는 대만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상당한 정도 후퇴한다는 것이지요. 즉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 공격까지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 전 단계에서 미국이 대만에서 후퇴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대신에 미국이 북한과의 경제·금융, 군사까지를 포함해서 북한을 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0년 사이에 말입니다. 북한으로서도 동의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동의 하에 북한을 남한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예측시킨다면, 중국으로서도 만주 국경의 압록강 가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 좋습니다.

●김민용 :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일종의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것이니까요.

●리영희 : 그렇지요. 중국의 경제나 정치력이 20년 후면 미국의 위상에 버금갈 것이니까 대만은 상당한 정도까지 중국에 어차피 흡수되니까. 그냥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정도 단계로 분쟁을 억누르면서, 근원적인 해결을 봉합하고 장기적인 해결을 미루면서 미국은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김민용 :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기 부시는 여러 가지 장벽이 가로막고 있고 1차적으로 군사적인 강공을 치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장기적인 군사전략의 재편과정에서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일정한 긴장 유지가 재편과정에 도움을 주고 또 당장 붕괴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클린턴 때처럼 자본으로 지배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경제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자본의 지배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

다. 북한으로서도 우선 당장에는 그것이 생존의 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고 말입니다.

●강정구 : 그런 방향이 남한이나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도 모두 바라는 방향 아니겠어요? 문제는 미국이 그것을 정책적으로 지향할 것인가, 미국의 21세기 세계 지배전략이라는 것이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할 잠재력을 가진 세력을 없애는 것,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면 한반도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아까 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경제성장 속도로 보면 203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게 되거든요. 브릭스 즉 브라질이나 러시아, 인도, 중국의 경제력이 오히려 미국, 유럽을 능가할 것입니다. 이런 시점이 되면 미국의 패권이라는 게 지금 식으로 용인되지 않는 구도입니다. 기본전략에 차질이 생기면 네오콘이나 그런 기조를 가진 세력들이 한반도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더라도 대만 사태는 언제든지 중국에 개입할 수 있는 틀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김민용 : 한반도를 장악하고 있으면 대만에 대해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지 않을까요. 한반도는 확실한 전진기지가 되는 것이니까요.

●강정구 : 미국이 이유 없이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대만이나 북한을 빌미로 해서 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건데.

●김민용 : 한반도 문제가 아까의 경우처럼 풀려나가게 되면 미국이 동북아 지역정치 패권을 일정하게 장악하는 모양이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자본에 의해서 한반도가 지배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문제인 반면에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안전한 부분이죠. 시간을 버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북한의 궁극적 관심이 개성공단의 예에서 보듯이 군사적 긴장을 풀고 대립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관계를 만들어 살고 싶다는 것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해볼 만한 것은 새로운 금융도시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홍콩의 경우에서 보듯이 50년에서 100년 기간의 조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미국이나 서방에 상당한 정보를 주는 것인데 물론 도박이 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우선 살아남는 게 중요하니까요. 가령 해주 지역은 그 밑에 개성과 서울이 있고 동북아를 묶는 중심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잘만하면 그 국제적인 효과는 대단할 것입니다. 북한측의 의지도 중요한데 신의주 특구의 경우를 봐도 비현실적인 발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강정구 : 들어갈 자본의 성격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북한 포위 전략이 안 풀리면 어떻게 하나요?

●김민용 : 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포위전략이 선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이러한 포위전략을 푸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미국이 보호해야 하는 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이야기를 바꿔서 6자 회담을 거론해 보지요. 6자 회담도 동북아 협력 체제를 짜는 과정인데 중국, 러시아, 일본을

어떤 눈으로 보면서 기조를 어떻게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리영희 : 동북아 국제정세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흐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에 대한 주체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미국이라는 세력, 힘과의 관계에서 자기부정적인 의존심에 빠져있는 게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극복하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아시아 대지진도 그 중심이 있듯이 민족 문제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면 다시 한미관계의 종속성 문제로 돌아옵니다. 한미관계의 대미 종속성을 고치지 못하는 한은 주변 러시아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이 변하든 일본이 변하든 미국에 얹혀서 살고 매달려 살고 미국 없으면 죽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큰일난다는 이런 의식의 문제를 고치지 않는 한은, 내부적으로 경제에 의존하는 미국의 체제를 고치지 않는 한은 동북아 정세를 한반도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깨친 지식인들이 매스컴을 충분히 활용하여 종속적 대미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바꿔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동과 서의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가는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대미관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통일에 힘을 발휘하려면 남북간 문제를 평화 공존의 문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정치적 개체의 모든 역량이 소모적인 적대관계에서 벗어나야만 상승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김민용 : 러시아, 중국, 일본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주체적 입장에서 끌고 나가야 하는가, 즉 이 나라들이 우리 입장에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변화를 위한 주도적 계기마련이라는 차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정구 : 우리가 주체적 입장을 견지해 나가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김민용 : 결국 동북아 나라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 기조가 문제가 되는데요.

●강정구 : 첫째는 이쪽에서 치면 저쪽으로 넘어지고 저쪽에서 치면 이쪽으로 넘어지는 조선조 말엽의 상태가 더 이상 아니다, 우리 남북이 함께 개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는 우리 혼자나 남북 민족 공조만 하는 게 아니라 탈미 동북아협력체, 이런 과정을 함께 해갈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나 중국의 이해관계는 분명히 우리의 이해관계와 일치할 수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사실 고이즈미가 극우적이라고는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 아셈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선언을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일본의 경우에도 북한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만 시베리아 개발이라든지 장기적인 불황탈출이 가능하다는 이해관계가 일본 일각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부시 식으로 핵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한다면 일본의 부담은 엄청나기 때문에 전쟁만은 안 된다는 유대관계가 김대중 정권 때 형성됐던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와 쉽게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고 일본이 이탈하지 못하게 노무현 정권이 잘 해야 이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용 : 리 선생님이, 미국이 일본과 10가지 조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96년의 미일안보공동선언에 이어 2005년에 이를 재수정하는 미일안보공동선언 발표를 목표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맞대응하겠다고 하고 중국과 인도가 손잡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새로운 지형이 짜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문제도 양안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북공정을 보면서 그래도 미국과 같이 가야 중국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충중립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럴 때 대안을 던져야 하는데 우리 자신도 지금 재조정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강정구 : 우리 스스로 주체적인 인식을 해야 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새우냐?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이고 남북 합치면 10위 안에 들고 군사력도 10위 안에 들고 IT산업도 선두주자고, 반만년 역사에서 이런 위치를 차지한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동북아에서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수준이지만 세계에서 아주 큰 수준입니다. 우리가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이나 평화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새우가 아니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어서는 새우가 아니라 피라미밖에 안 된다는 민족 허무주의, 패배주의적 인식이 동시에 있습니다. 사실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동북공정이 문제가 되니까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비밀리에 왔습니다. 그가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현재 국경선을 재확인하자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김민용 : 언제였죠?

●강정구 : 얼마 안 되었죠. 북한은 3년 전에 국경재확약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국경분쟁은 지역이 파키스탄, 인도, 베트남, 위구르,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데 중국이 양보를 하면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과도 매듭을 지으려고 했는데 좀 지나쳐서 고구려 역사를 일방적으로 해석한다든지, 동북공정이 실제 중국이 추진했던 것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로서도 동북아 정세를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고 편협한 극우적 민족주의 정서에 빠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국을 끌어들이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이나 일본을 이롭게 할 거라는 인식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김민용 : 동북공정은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중국 자체의 주체적인 의도가 있는 한편 우리가 잘못된 것도 있죠. 그 하나가 과거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쪽에서 고토 회복운동을 떠들고 다녔는데 그게 중국정부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신들은 중국 사람이냐’고 할 때 연변 자치족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중국을 매우 예민하게 자극해버린 셈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이에 대한 대응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한국이 통일될 경우 조선족 자치주가 한반도에 들어가는 영토일 수밖에 없으니까 중국으로서는 강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한미동맹관계가 중국포위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역사적 방어망을 쌓는 거죠. 강 교수님 말씀처럼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형성됐던 민족주의가 경계선을 넘으면서 공격적이고 팽창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북아 정치 질서 속에서 우리 민족은 중립화로 가야 합니다. 중립화란 두 가지 근본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중립화 하면 처음에는 “아 좋죠!”라고 했다가 중립화의 전제는 한미동맹관계를 정비하는 거라 하면 딱 뒤로 물러나요. 또 하나 문제는 중립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외교적 능력이 부족할 때는 상전 넷이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한반도를 어느 주변 나라에도 미혹되지 않고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고 중립

적인 완충지대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을 꾸며나가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주변 열강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 문제죠.

●강정구 : 김대중 정권 때부터 동북아 정세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북한 핵위기에 대해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아세안 플러스 3 회담을 주도하고 연례화시켰습니다. AMF(아시아통화기금) 논의도 있었습니다. 우리 차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북쪽에서 2002년 9월 17일인가 북일 정상회담을 하고 7월 1일 경제 관리개선조치를 해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받아들이고 신의주 특구 등 개방으로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럽에서만 26개국 정상이 참석한 아셈회의 때 한반도 평화선언을 이끌어냈고 한일 정상이 미국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김대통령이 10월 초에 돌아와서 하룻밤 자고 닳는데 부시가 특사파견을 미루던 기존 정책을 갑자기 바꾸고는 김 대통령에 전화를 해 북측에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켈리가 북에 가서 농축 우라늄을 터뜨렸습니다. 탈미 동북아 협력체가 출발을 하려는 시점이었습니다.

●김민용 : 동북아 협력체제 분열전략이었던 것이죠.

●강정구 :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정권 때의 동북아시아 협력을 향한 우리 독자적인 노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데, 촛불시위에서 보듯 국내기반도 있는데 그런 역할을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노무현의 LA 선언은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용 : 한미동맹의 성격전환문제로 넘어가 보죠.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의 성격을 2005년부터 지역동맹으로 공식화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지역동맹의 내면의 성격은 침략동맹이죠. 이것이 전선이 확대되면 중국과 러시아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반도 분단에 의한 구조적 긴장은 더 첨예화될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군비경쟁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소위 지역동맹으로서의 '유연성'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단순히 한국에 대한 방위약속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패권전략의 도구로 운용하겠다는 것인데 한미동맹의 성격 전환의 배경 및 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리영희 : 타원형이 두 개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미동맹의 전환에는 세 가지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더 단기적인 문제로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군사적 입지에서서 군사적 봉쇄를 강화하고 선제공격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2020년대에 가서는 미국의 군사전략 뿐만 아니라 정치전략이 중국에 대한 패권 유지 심지어 전면전을 불사하기 위해서 일본, 남한의 군대를 하나의 틀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미군 기지 재배치 문제입니다. 한미동맹 전환문제는 단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을 제외한다면 총체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오콘들이 말하는 언스테이블 아크(불안정한 호)입니다. 일본에서 한반도, 대만을 지나 아랍 세계 밑으로 깔리는 이른바 불안정한 아크로 불리는 이 지역전체를 관장하는 미군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총사령부를 일본에 두고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대를 그 하위동맹군으로 편입시키며 나아가 필리핀군과 태국군까지 동원하여 언스테이블 아크 전체를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는 구상입니다.

미 1군단 사령부를 일본 자마로 이전하는 것도 사실은 주일미군이 중동까지를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총사령부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일미군사령관이 미군 육군대장으로 승격하고 이때까지 없던 실제 전투의 삼군 총지휘부가 오게 되면 여기서 일본군은 물론 남한군까지 작전통제를 하게 된다고 봐야합니다.

미국은 이미 일본군이 미군의 군사기동대로 선두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10가지에 달하는 조약을 일본과 체결하였습니다. 일본은 또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을 미일연합군 차원에서나 민간동원 차원에서나 거국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법률, 가령 주변사태법을 비롯하여 유사관련입법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한미동맹의 성격전환은 현재 대북한 방위에 고정되어 있는 한미연합군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군의 군사작전을 위해 동원되는 한미연합군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이제부터 대만, 아랍세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한미연합전쟁체제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미국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한미방위동맹의 성격을 우리 주체적으로 수정하고 우리가 미국 지배의 한미연합군사체제에서 빠져나와 우리를 위한 것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동북아시아의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의 관계를 실질적인 공존 관계로 유지·발전시켜야 합니다.

●김민용 : 리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한미동맹 성격도 변하고 미국이 동북아 전체에 대한 지배전략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나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대한 제동을 거는 문제는 1차적으로 한미동맹의 대미종속성을 극복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리영희 : 앞으로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수정해야 할 것은, 폐기는 당장 어려우니까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해서 대한민국을 보호한다는 골격을 빼면 좋겠어요. 항상 북한을 적대적 침략세력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남한이 북한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구실을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남한을 보호한다는 상호방위조약 3조나 4조는 필요가 없습니다. 조약상 미국의 군사적 방어의무를 경감시켜야 합니다. 또 북한의 호응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남한이 한미동맹수정에 대한 두려움을 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 있을지 모르는 미국의 침략에 대한 자기 방어체계를 해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선언이나 시장경제적인 요소의 수용 등을 통해 남쪽이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체제를 전면적으로 바꿔내는데 북한이 공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남쪽은 한미동맹에서 미국의 책임을 해체시켜 나가야 하겠지요. 미국은 자신의 필요상 많은 군사적 임무를 한국군에 넘기고 있습니다. 휴전협정에 규정된 자신들의 임무를 사실상 다 한국에 넘겼습니다. 또 한미동맹의 10가지 가량의 하부결정권도 한국군에 넘겼습니다. 자신의 세계전략적 목적을 위해 군사적 임무와 역할을 한국군에 넘기고 있습니다. 방위동맹의 명령과 지시를 받지 않는 대한민국 독자적인 군대, 이것이 우리가 확보해야 할 결정적으로 대등한 지위라고 할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대북한 적대성을 제거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자 변화 도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 형태와 한미동맹을 규제하는 방위조약에 대해 생각한 안이 있습니까?

●박기학 : 예. 신한미상호방위조약안이라고 해서 이미 2003년에 평통사와 한미관계연구회

에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청산하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 안은 주한미군 철수와 우호협력적인 한미관계를 목표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안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리영희 : 주로 어디를 어떻게 고쳤습니까?

●박기학 : 사실 모든 조항에 걸쳐 전면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고치고 새로 썼습니다. 특히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적 개입을 허용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전면 수정했습니다. 가령 미군의 일방적인 배치권을 규정한 4조의 경우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하에서만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리영희 : 배치만 하고 배치해둔 군사력이 외부로 이동투입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이야기 안 했어요?

●박기학 : 사전에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리영희 : 한국정부하고 말이죠. 한 가지로 해야죠. 일본을 중심적인 거점으로 삼아 전체 아태지역에 출동하려고 하는 거니까 주한미군의 출동과 현황에 대해서 한국정부와 적어도 협의권과 동의권을 갖도록 해야 하겠죠.

●박기학 : 또 방위의 지역범위를 ‘대한민국 영토’로, 미군 주둔의 목적을 ‘대한민국의 안전’으로 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영역에 대한 방어 목적의 배치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의 주한미군의 사용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 되도록 했습니다.

●리영희 : 그렇게 되면 미국의 총체적인 지구표면의 군사적 재배치의 기본 원리하고 정면 배치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요? 방위조약의 수정은 부분적인 것을 고려해서 뺄질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전반적인 기조에 대응해야 하는 거니까요.

●강정구 : 그런 점이 문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적 유연성은 안 된다’는 발언도 미국 GPR에 어긋나니까 관철이 되기 힘들죠. 그러면 방안이 없잖아요. 근본적으로는 한미군사동맹의 폐기, 주한미군 철군 등을 이야기하면서 그 궁극적 단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초보적 단계로서 전략적 유연성을 거부하는 식의 전술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리영희 : 방위조약의 미국측 양해사항은 자기들이 한반도의 전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만들어 붙인 겁니다. 말은 이러쿵저러쿵 갖다 붙였는데 뭐가 일어나도 앞의 1, 2, 3조, 5조, 6조까지는 하는 척하고 사실은 우리는 빠지고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전체 구조가 모순적인 것을 고쳐야지요.

●박기학 :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무제한적인 권리를 갖는데 의무는 지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미국의 일방주의를 허용하는 독소조항들을 폐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실 한국 정부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사전 협의로써 대처하겠다

고 하는데 이를 부정하는 조항, 가령 주한미군의 일방적 배치권(4조)이나 위협에 대한 일방적 판단과 조치(3조)가 모법에 있는 한은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호방위조약의 전면 개폐가 전제되고 병행되어야 합니다.

●김민용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전체 기초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한국군이 미군의 일방적인 지휘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그래서 한미동맹의 종속적 성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한미연합지휘체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죠.

●리영희 :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잠정적인 동맹상태로 공동군사행동을 하거나 장기적인 동맹체로 군사행동 할 때, 그것이 장기든 단기든 또 저강도든 고강도든 타국군과 연계되거나 협동하고 연합할 때 변함없는 원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군이 지상에서 이동할 때는 엄호 차원에서 핵군사력이 따라갑니다. 핵 군사력을 뒤에 따르게 하지 않고는 절대 안 갑니다. 둘째는 어떤 형태의 연합이든 공동작전에서 미군이 사령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셋째는 군사작전 때 나타나는 미군의 반인도주의적 잔학행위, 국제법 위반 행동에 대한 형사처벌은 미군은 안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작전 지휘권의 미군장악과 한미소파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럼, 고친 신한미상호방위조약의 경우 작전지휘권을 환수하면 미국의 이 원칙과 모순이 일어나는데.

●박기학 : 자위대도 작전지휘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리영희 : 미일안보조약하고 우리 것하고는 몇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일본과의 안보조약은 일본에 들어와 있는 미군이 해외에 파병될 때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지사령부도 미국이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와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본은 원래 3급동맹으로 인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4급 동맹이이거든요. 영국, 캐나다는 1급입니다. 2차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미국이 핵무기에 관한 비밀을 공유하는 국가는 영국과 캐나다로 이들이 1급 동맹이고 나머지 불란서 등이 2급, 일본은 3급, 대만이나 한국은 4~5급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동맹조약 자체가 차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기학 : 작전통제권 문제만 보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한미동맹이 지역동맹으로 전환되면 이제 한반도 방어차원만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 작전에서도 한국군이 미군의 통제하에 들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 대만의 충돌 시 미국의 대중국 작전이나 다른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의 분쟁에 그대로 동원이 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의 환수와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차원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 개폐가 매우 중요합니다.

●리영희 :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군과의 합동군(연합군)형성에 한국군이 편입되는 문제입니다.

●김민용 : 작전권 환수 문제 더 이상 짚을 게 있을까요?

●강정구 :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작전권 환수를 하기 힘들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민용 :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중요하지만 전체 기조를 흔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조를 흔들면 거기에 맞춰 나갈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나라가 대상이 되든 침략적인(적대적인) 동맹으로의 전환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뿐만 아니라 현 상호방위 또는 동맹의 대북한 적대적 성격을 제거하는 것이 큰 기조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동맹의 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작전권 문제는 거기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강정구 : 그렇게 격상되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동맹이 더 견고화 됩니다.

●김민용 : 맞습니다. 제 이야기는 동맹의 격상을 논하는 것은 우리의 자율적 영역을 확대 하자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맹의 성격재조정에 대한 논의를 동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종속성과 침략성을 병렬적으로 극복하는 방안이 고민됩니다.

●박기학 : 1급동맹이나 2급동맹은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해 자율성을 갖지만 미영동맹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침략적 성격의 동맹입니다. 따라서 자율성 차원에서 말할 수는 있지만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있다는 미일동맹도 그 군사지휘체계를 보면 미국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일동맹이 한미동맹 전환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미동맹의 대북한 적대적 성격을 제거하는 것과 함께 미국이 강요하는 또 다른 적대적 성격의 동맹으로의 퇴행적 전환 기도를 저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는 FOTA회의에 대응해 왔습니다.

●김민용 : 그것을 계속 하실 거죠?

●박기학 : 네.

●리영희 : 민간기관에서 학자들이 이와 같은 동북아 정세와 남북한 정세와 미국정책의 전망을 모두 꿰뚫어서 한미상호방위동맹의 형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실체로서 군사적 관계에서의 한국의 주권행사의 한계성과 새로운 형태의 동맹조약을 연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강정구 : 연구하는 데가 없죠. 지역동맹화를 정당화시키는 글들만 계속 나오죠.

●김민용 : 어떻게 정당화 시키는 거죠? 어떤 논리로?

●박기학 : 중국 위협론이죠.

●강정구 :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위해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지역안보동맹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랜드연구소와 한국국방연구원의 공동보고서가 1994년 SCM에 보고되었습니다. 또 이를 받아 많은 연구자들이 이 같은 입장을 그대로 써

내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의 연구는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김민용 : 현 정부는 한미동맹 전환문제나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강정구 : 중국 포위를 목적으로 한 한미군사동맹의 전환이 용산기지 이전협정등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벌써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이 11월 13일 LA에서 “전략적 필요에 의해 주한미군의 수를 줄이고 늘리는 문제를 미국이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게 한국이 협력해야 하지만, 내가 말한 융통성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주한미군 역할의 유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발언하였거든요.

●김민용 :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강정구 : 했죠.

●김민용 : 굉장히 중요한 발언인데 그걸 밀고나갈 정치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는냐가 문제입니다. 또다시 선언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자이툰 부대 방문, 귀국 뒤 용산기지 이전 협정 비준동의, 이라크 파병연장 처리 등은 노 정권이 실제 문제를 푸는데서는 미국의 입장에 철저히 서있다는 증거거든요.

●강정구 : 바로 그것이 노무현 정권의 딜레마입니다. 노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누가 집권해도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입니다.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안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 지향과 실제 그것을 집행하는 관료들이 따로 노는 것은 리선생님 말씀처럼 미국 없으면 못산다는 세력들 대표적으로는 외교부, 국방부 고위 관료들과 한나라당 등이 한국 사회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산기지 이전 협정이 국회 상임위에서 14대 1로 통과된 것을 보면 친미보수세력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김민용 : 정부 내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거고 결국 시민사회운동이 나서야 한다는 거네요.

●강정구 : 그렇죠. 노무현대통령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도 실제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줄 세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쟁점화 할 수 있는 세력이 민중시민사회의 평화운동, 사회운동세력밖에 없습니다. 민중시민사회가 치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게 촛불시위를 보면 동력을 형성할 수 있는 기조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다.

●박기학 : 우선 시민사회운동이 한미양국 정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쟁점화를 시켜

내는 실천적 투쟁이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내용 자체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 자체를 모르거나 알아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김민용 : 우리한테는 앞으로 1, 2년이 선택 가능성이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든 두 가지 점을 결코 원치 않을 것입니다. 중국과 군사적인 적대관계를 원하느냐,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원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이라는 체계 속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미국의 군사전략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적대적인 전선 그리고 일본에의 군사적 종속 바로 이 두 가지를 수용해야만 한미동맹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재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거나 한미동맹을 바꿔야 한다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보다 중국과 적대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에 또 종속돼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한미동맹의 성격전환에 대한 대응논리를 펴는 것이 훨씬 대중적인 설득력을 가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정구 : 저도 그런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80년대는 일본 위협론이지 중국 위협론은 없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중국 위협론이 미국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는데 한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다. 최근 1, 2년 사이에 대만사태에 관한 우려가 생겼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는 셈입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분쟁에 우리 나라가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인식과 함께 한미관계에 대한 새로운 주체적 인식도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김민용 : 올해가 해방 60년인데 뭐 꼭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만한 세월이 지났으면 청산과 새로운 시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5년을 맞이하면서 민족 내부, 민족간의 국제적인 과제를 떠올린다면 우선 순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리영희 :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는 세력이 한미동맹을 바꿔내야 합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니까. 그럼 다시 어떤 역량이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미국 없으면 죽는다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어느 정도의 주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결정적인 정치 행위로서 한미동맹 개정을 끌고 갈 수 있는 층이?

●강정구 : 정치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판은 잘 짜지지 않죠. 선거를 할 때 이런 문제를 쟁점화시키는 정치구조가 안 되어있거든요. 유권행사를 할 때 그것이 기준이 안 되니까 확산이 안 되는 거죠.

●리영희 : 그래서 확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이슈로 들고 나오면 반드시 진다, 그러니까 안 들고 나온다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강정구 : 그렇기 때문에 운동진영에서 효순이, 미선이 압사사건 이후 촛불시위를 통해서 정치투표행위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60년 동안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있었으니 이런 이벤트 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벤트로 쟁점화시켜서 의

식을 변화시키는 데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민용 : 여중생 사건 때의 촛불시위로 국민의 의식이 많이 변했죠

●리영희 : 젊었을 때는 좀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 했는데 인내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
다. 우리 국민의 70%가 보수고 종교인구의 절반이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이 인구의 4분의
1인 상황에서 이런 화제들이 나오지 못합니다. 미국의 밥줄, 돈줄, 목숨줄, 교육줄 등을 고
쳐나가면서 거기에 매달려 형성된 상호구조적인 의식을 바꿔내는 것도 필요해요. 이 과정이
란 게 여학생 사건, 좀 거슬러 올라가면 광주 민주화 운동 사건으로 해서 20년이 걸렸습니
다. 항상 같은 속도로만 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하지 않게 꾸준히 의식화해 나가는 게 중
요합니다.

●김민용 : 한미동맹 성격을 바꾸는 과정에서 북한 나름의 적극적인 대응도 중요한 것 같습
니다.

●리영희 : 중요하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을 적으로 삼는 전략을 바꾸는
과정에서 대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반발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군축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또 전반적인 큰 틀을 서서히 고쳐나갈 수
있는 정치 권력을 남쪽에서 양성해 주는 의미에서 북한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
해서 이견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줘야 국민과 유권자들이 안심할 겁니다. 직접적인 군
대의 문제와 한국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김민용 : 불가피하게 직접적인 남북한의 군축문제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개
적인 대응, 군사적인 대응도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증가하
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우리 민족 내부의
무장해제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축논의를 진행하는 경우 주변의 군사적 환경도 고려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남과 북이 민족방위군으로 서로 결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
도 염두에 뒤야 할 것 같습니다. 잔뜩 어려운 이야기만 하고 만 듯한데, 선생님 최근에는
어떤 영역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기울이시는지요?

●리영희 : 중국 고전하고, 불교 경전 본지는 한 10년 됐습니다.

●김민용 : 어떠세요?

●리영희 : 난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정신대로 살아가길 원하지. 마호메
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류의 사상과 세계관대로 살려 해
요. 교회, 절간을 싫어합니다.

●김민용 : 마음이 어떠세요? 부처님 만나시고, 예수님 만나시고.

●리영희 : 나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내세에 기본을 둔 어떠한 신앙도 믿지 않습니다. 그

리고 종교가 없었다면 인류가 보다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유일신 종교는 자기가 믿는 한 가지만 절대적이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만 절대적입니다. 부시나 네오콘, 모두 그거 아닌가요. 아랍도 마찬가지고. 절대화 되면 절대라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나머지 것과는 모두 적대적이다, 영원히 전쟁입니다. 과거의 가톨릭교가 해온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종교 전쟁의 형식입니다. 종교가 없으면 다른 믿음 같은, 인간의 사랑, 인도주의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김민용 : 취미는 뭐 하세요?

●리영희 : 이젠 없어요. 예전에는 목공이었어요.

●김민용 : 요즘에는요?

●리영희 : 요새는 못합니다. 책상, 의자. 실제 목재상에 가서 끌고와 키고 재고. 취미이기도 했고 30대 때부터 나의 철학입니다. 지식인은, 두뇌노동자는 반드시 육체노동으로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밸런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육체와 머리가 합쳐져서 물적으로 생산물을 만들어냅니다.

●김민용 :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2005년 민족자주운동의 과제와 전망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미국은 자신의 세계 유일패권적 지위의 하락을 저지하기 위하여 (군사적) 일방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중국의 급성장 등으로 인한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면서 미일동맹의 침략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고 한미동맹의 성격을 대북 방어동맹에서 아시아태평양 침략동맹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쉽게 할 목적으로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고 있으며, 한미안보공동선언 제정을 통하여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주한미군 재배치와 이후의 안정적 주둔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주한미군경비지원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안정적인 영구주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여 동북아에서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공고히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저지하는 길은 따라서 미국의 이와 같은 기도를 저지 파탄시키는 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5년 우리가 핵심적으로 전개해야 할 반미자주투쟁의 과제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 글이 치욕의 미군 강점 60년을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

1.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이하 '용산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이하 'LPP개정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작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한미 양국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지음에 따라 12월 17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모든 미군부대의 용산기지 및 수도권 이외 지역 재배치' 항목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미 국무부의 최근 업무 평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협정들은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굴욕적인 협정이며,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위헌적인 협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정부의 사대매국적 협상을 시정하자는 커녕 이를 그대로 인정함

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임무를 포기하였다. 이는 국회가 국민의 이익과 국가 주권을 지킬 의사도 능력도 없는 집단임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협정으로 인한 모든 부담과 위협을 국민에게 떠넘긴 지금, 평택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오로지 우리 국민의 힘과 지혜로 저지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다.

1) 강제 토지수용 저지투쟁

우리는 우선 평택지역에 대한 강제 토지수용을 저지하는 투쟁을 평택주민들과 함께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 투쟁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막는 가장 유력하고 결정적인 투쟁이다. 부지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투쟁은 또한 토지를 빼앗기게 되면 생활의 근거 자체가 상실된다는 점에서 평택주민들에게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투쟁이다. 따라서 그만큼 투쟁의 강도도 높을수 밖에 없는 투쟁이다.

대중적 투쟁동력으로서 토지수용대상 주민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각오하고 있고, 사안의 심각성과 부당성이 국민대중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이 투쟁은 향후 1~2년 내 가장 중심적인 대중적 반미자주화 투쟁의 고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토지수용 대상 주민들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결하여 토지수용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이 얼마나 이 투쟁에 힘있게 결합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투쟁이 토지수용대상주민들만의 투쟁으로 제한된다면 이 투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불안 핵폐기장 반대투쟁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미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한미간 합의사항이라는 점에서 추진 강도가 훨씬 쉼 것으로 예상되는 데 비해, 핵심 동력은 아직까지 직접 피해당사자인 토지수용대상주민 2천여 명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대투쟁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하다.

우리는 한미양국의 강제 토지수용 저지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의식적 준비정도와 결속력을 높여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지지·지원하는 한편,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광범위하고 실속있게 꾸려 한미양국의 토지 강제수용 기도를 강력한 대중적 투쟁을 통하여 저지해야 할 것이다.

2) 용산 등 미군기지 매각 저지투쟁

우리는 다음으로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마련 목적의 용산 등 주한미군기지 매각을 저지하는 투쟁을 광범위하게 벌여야 하겠다. 정부 예산이 제한된 조건에서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재원 마련의 거의 유일한 방안은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매각하는 것이다. 즉, 정부는 땅장사를 통하여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정부의 반환기지 매각을 저지한다면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은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강제토지수용 저지투쟁이 땅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을 무산시키는 투쟁이라면, 이 투쟁은 비용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군 재배치 계획을 좌절시키는 투쟁이다.

이 투쟁은 반환되는 미군기지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용산기지의 경우, 이미 시민사회운동진영과 서울시 등에서는 민족공원화 또는 생태공원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이 문제는 환경단체나 문화단체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하고 서울 시민을 비롯한 국민의 대중적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투쟁 동력의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투쟁이다.

2.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회의'(SPI) 및 '고위 전략 대화' 대응투쟁

1) 현황

한미양국은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회의'(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를 설치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 변화, 미래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차관급 '고위 전략 대화'를 개설하여 2006년까지 한미안보공동선언을 추진키로 하였다.

한미양국은 이들 회의를 통하여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기동군으로의 역할 확대를 허용하고 한미동맹을 대북 방어동맹에서 아시아·태평양을 포괄하는 침략동맹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재해석 및 한미안보공동선언 제정을 추진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내외로 자유로이 들락날락(in-and-out)하도록 하는 입출입 규정을 제정하며, 전시작전통제권 및 한미연합지휘체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양국은 2005년 초부터 약 2개월 간격으로 1~2년 동안의 회의를 통하여 이들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의미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를 통하여 주한미군 역할 확대의 물리적 조건(주한미군 재배치, 한미간 군사임무 전환, 한미연합전력증강 등)을 마련하게 된 미국은 ‘SPT’와 ‘고위 전략 대화’를 통하여 주한미군 역할 확대의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또는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가 합법화된다는 것은 지난 50여년 동안 유지되어왔던 방어적 성격의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한미군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분쟁에 개입하는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되고, 한미동맹은 대북 방어동맹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분쟁에 적극 개입하는 침략동맹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분쟁에 개입하는 미국의 전진기지 또는 병참기지가 되는 것은 물론 한국군도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이 주변국 분쟁에 무력 개입하고 대한민국이 그 전진기지 또는 병참기지 역할을 할 경우 한반도에도 분쟁의 불똥이 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중국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지역동맹 전환은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제정과 함께 미국이 자신들의 숙원이었던 동아시아판 NATO 구축의 중대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의 최하위국으로서 대중국 전진기지와 전세계 병참기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대미 군사적 종속이 심화되고 공고화되면 그에 반비례하여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에 역행하며 민족자주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한국전쟁 이후 50여 년간 유지되어온 방어동맹 성격의 한미관계를 침략동맹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문제다.

따라서 자주·평화·통일 운동세력은 이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갖고 비상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3) 사업과제

한반도 안보환경의 근간을 뒤흔드는, 특히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불러올 이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지배집단 일각에서도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다수의 국민들도 이와 같은 문제들에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한미군에 대하여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등의 공세적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SPI'와 '고위 전략 대화'에서 논의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재해석, 한미 안보공동선언, 주한미군 입출입 규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회단체들로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한미양국의 음모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폭넓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자주·평화·통일 운동세력의 공동 대응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하겠다. 한미양국이 앞으로 열게 될 관련 회의 등을 계기로 미국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집회, 기자회견, 면담 등의 각종 사업을 조직하고, 각종 토론회, 언론사업 등을 통하여 여론을 확산해야 할 것이다.

3. 주한미군경비지원협정 폐기투쟁

한미양국은 91년부터 약 3년마다 체결해 온 주한미군경비지원금협정(방위비분담금협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12,500명의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용산 등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의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한국군 이라크 파병비용까지 우리가 모두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심지어 용산협정 등에 자국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 C4I 개선 비용이나 주택임대료 등까지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나아가 자신의 부당한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NPSC(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용)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는가 하면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의 성격을 '비용분담'(Cost Sharing)에서 '의무분담'(Burden Sharing)으로 바꾸고 이에 따라 현재 경비분담율 45%(미국 주장)를 75%까지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의 성격과 개념까지 바뀌가면서 부담을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역할확대 비용의 대부분을 우리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와 시설의 공여를 제외한 주한미군의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 SOFA 제5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미국의 이런 요구는 원천적으로 부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요구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와 역할확대에 드는 비용 대부분을 우리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날강도와 같은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이런 부당한 요구를 직접 또는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에 바탕하여 미국에게는 부당한 요구를 철회할 것을, 한국정부에게는 굴욕적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에 더 이상 나서지 않음으로써 이 불평등한 협정이 자동 폐기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의 의의와 방향 토론회

지난 해 12월 1일 ‘남북한 군사력 비교의 의의와 방향’ 주제로 임종인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의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이철기 교수의 주제토론 중 일부, 고영대 연구위원의 토론문 중 일부의 순서로 글을 실었습니다. -편집자 주

주제토론: 남북한 군사력 비교: 북한 군사력 위위론의 허구성

이 철 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2배가 넘는 인구와 30배에 달하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남한이 ‘잠재군사력’이나 ‘전쟁수행능력’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한이 북한에 비해 ‘잠재군사력’에서 우세하다는 것은 국방부도 인정하는 바이다. 국방부는 “전쟁수행 잠재력에서는 남한이 월등히 우세하지만, 동원군사력 면에서는 남북한이 대체로 대등하고, 상비군사력 면에서는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단지 현존군사력에서 열세라는 것이다. 현존군사력에서 열세이기 때문에, 북한의 기습공격과 속전속결전략에 의해 서울을 점령하는 등에 대한 억지력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대북 현존군사력 열세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다.

1) 단순개수 비교우위론

국방부가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해온 방식은 남북한의 병력과 주요 무기의 보유수를 이른바 ‘낱알세기(bean count)’ 하는 ‘단순개수비교’다. <표-1>은 국방부가 국방백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한 군사력 비교표이다.

이러한 ‘단순개수비교’나 ‘등가치비교’는 그 성질과 질을 달리하는 남북한의 인적·물적 역량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단순개수비교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군사력에 대한 불충분하고 왜곡된 상을 제공할 뿐이다. 첫째, 병력과 무기의 질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군사력 평가의 기본적인 상식조차 무시하고 있다. 둘째, 개수비교가 모든 양적 요소를 충분히 포괄하는 것도 아니다. 셋째, 개수비교는 매우 중요한 조직적 역량을 고려치 않는다. 넷째, 개수비교는 다양한 범주의 단위부대와 무기체제가 실제 전투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게 되는 과정을 고려치 않고 있다.

우선 북한의 병력을 117만 명으로 잡고 있으나 이는 매우 과장된 측면이 있다. 사회주의 특유의 ‘인민전쟁론’의 전쟁관을 갖고 있는 북한의 경우, 인민군은 남한처럼 밥 먹고 군사훈련만 하는 모두 정예 군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당규모의 인민군들은 도로건설과 같은 대규모 건설공사나 농사일 등에 동원되는 ‘반군반민’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의 인민군부대는 상당량의 식량을 자급자족하거나 부대경비를 자체 조달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북한과 같은 방법으로 환산한다면, 한국의 경우도 현재 재대한 장교나 부사관을 전부 병력수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경우 한국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인원도 병력수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육군의 주력무기인 전차의 경우, 북한의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형인 T-34를 비롯해, 1950년대 형인 T-54/55/59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북한이 보유한 최신예 전차는 T-62에 불과하다. 이라크는 북한보다 1세대 이상 앞선 T-72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990년 걸프

전과 2003년 이라크전에서 미국의 M1A1전차를 한 대도 파괴하지 못했다. 게다가 한국군은 대전차용인 공격용 헬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표-1> 국방부의 남북한 군사력 비교표

출처: 국방부, 『국방백서 2000』(서울: 국방부, 2000), p.202.

구 분		한 국		북 한	
병 력	지 상 군	56만명	69만명	100만명	117만명
	해 군	6.7만명		6만명	
	공 군	6.3만명		11만명	
주요 전력	지상군	부대	군 단	11개	20개
			사 단	49개	67개
			여 단	19개	78개(포병 30여개여단제외)
		장비	전 차	2,360여대	3,800여대
			장갑차	2,400여대	2,300여대
			야 포	5,180여문	12,500여대
	헬 기		600여대	-	
	해 군	수상전투함	160여척	430여척	
		지 원 함	20여척	470여척	
		잠 수 함(정)	10여척	90여척	
		항 공 기	70여대	-	
	공 군	전 투 기	540여대	870여대	
		특 수 기	40여대		
		지 원 기	230여대	840여대	
	예비전력(병력)		304만여명		748만여명

해군력의 경우, 남북한의 격차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북한에는 사실상 현대적 의미의 해군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보유한 1천톤급 이상의 수상전투함으로는 소호급 1척과 나진급 2척의 호위함(frigate)이 고작이다. 이들 함정들도 공대함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므로 연안 이외에서의 작전이 불가능하다. 나머지는 대부분 200-400톤 사이의 미사일정과 경비정, 그리고 100톤 미만의 쾌속정들으로써, 전쟁 시 항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파괴가 2m 이상인 경우 200톤 미만의 북한 함정들은 작전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파괴 2-3m의 해상상태에서는 200톤 이상의 함정도 함요동 및 사격통제장비의 성능 미흡으로 인하여 전투능력이 현저히 감소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KDX-I 사업에 의해 3,500톤급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3척과 KDX-II 사업에 의해 4,500톤급의 이순신함과 문무대왕함을 이미 취역시켰으며, 이들 구축함의 추가 취역은 물론 KDX-III 사업에 의해 7,000톤급 이지스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잠수함(정)의 경우, 북한의 전력을 극도로 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남북한의 잠수함(정) 보유수를 각각 10척과 90척으로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잠수함 가운데 그나마 전력화할 수 있는 것은 1960년대에 도입한 Whiskey급 4척과 1970년대 도입한 Romeo급 22척 정도다. 이들 잠수함도 대부분 취역한지 25년 이상 되어 재원심도까지 잠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화 되어 있으며, “경운기”로 불릴 정도로 소음이 심하고, 어뢰의 직선발사만 가능한 구형이다. 이밖에 277톤의 상어급 22척과 25톤의 유고급

40척의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해안에서의 특수침투작전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Military Balance 2003-2004*는, 북한잠수함 전력을 26척만 인정하고 소형 잠수정의 경우 전투서열 목록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1,200톤의 장보고급 9척 이외도 한국이 자체 제작한 잠수정인 돌고래급 11척을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도 “북한의 잠수함(정)은 대부분 구형 저속으로 고속 회피하는 표적 공격 시 접근이 곤란하며, 축전지 충전을 위해 1일 최소 3시간 이상 부상/반잠항 항해가 요구 된다”고 시인하고 있다.

공군력의 경우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북한 전투기의 절반 가까이는 한국전쟁과 1950년대에 도입된 미그-17(J-5)과 미그-19(J-6)기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남한 공군조종사들의 기술적 우월성과 비행훈련시간에 있어서 압도적 우위는 우리 군 당국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게다가 북한의 경우 유류난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비행훈련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무기체계는 4대군사노선이 시작된 60년대에 형성된 구형으로서, 무기 현대화에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

2) 군사비 투자액 누계액 우위론

북한 군사력 우위론의 또 하나의 논리는 북한이 군비 증강을 남한 보다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투자비 누계액에서는 북한이 앞선다는 것이다. 1997년 11일 국회 국방위 답변에서 당시 김동진 국방장관은, “북한이 우리 보다 군사력 건설에 일찍 착수했고, 투자비 누계액도 북은 총 585억 달러로 남한의 548억 달러 보다 많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90년대 이후 남북한의 연간 군사비 차가 50억 달러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1998년 누계액에서는 남한이 앞섰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군사비의 투자비 누계액에서는 여전히 북한이 앞선다는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경우 투자비 누계 계산에 감가상각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원조도 계산하지 않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함택영 교수는 미국의 군사원조와 감가상각 등을 포함한 보다 객관적인 추정에 의거하면, 국방비 누계에서도 1977-1981년부터 남한이 북한을 앞서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군사비 지출 면에서 비교할 때, 국방부가 인정하듯이 1976년부터 남한의 군사비가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한다. 그 이후 남북한의 군사비 지출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통계에 의하면, 1990년 이후 북한의 군사비는 남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통계수치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IISS와 한국 국방부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북한의 군사비는 1985년도 수준에서 계속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군사비 지출에서 한계에 부딪친 북한은 1980년대 이후 교육지책으로 전력의 질적 개선보다는 병력 수를 늘리는데 만족해 온 반면, 한국은 첨단 장비의 도입 등을 통해 군사력의 질적 향상을 꾀해 왔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남북한의 군사비 격차를 3-6배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의 통계에 의하면, 북한이 경제난을 겪은 1990년대 말 이래 남북한의 군사비 격차는 9배에 달한다.

<표-2> IISS의 남북한 군사비 비교

화폐단위: 미국 달러, 1999/2000년은 1999년 고정가, 2001/2002년은 2000년 고정가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북한	21억	20억 4900만	43억 7400만	47억 2800만
한국	120억 8800만	124억 9600만	110억 7700만	126억 1500만

3) 실질 구매력 우위론

전력증강 투자비의 실질 구매력 면에서 북한이 현저히 앞서 있다는 주장 역시 북한의 군사적 우위론을 설명하는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국방부는 한국의 경우 K-1전차 1대 구매가격이 23억원인데 비하여 북한의 T-62전차 구매가격은 7억원이며, 또 한국의 F-16 전투기 가격은 4,300만 달러인 반면 북한의 MIG-29 가격은 2,200만 달러로 구매력 면에서 2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주장대로 북한의 실질 구매력이 남한 보다 3배 이상 높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설득력이 없다. 이것이 실제로 북한의 전력 증강으로 이어져 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군사비가 1985년도 수준에서 계속 정체해 온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무기의 획득과 같은 전력증강이 한계에 달하고 기존의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 북한의 단지 장사정포를 늘여 대남 억지력을 확보하려는데 급급했을 뿐, 전력증강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에서 2002년 사이 남북한의 외부로부터 무기 수입액을 비교하면 그 격차는 무려 16배에 달한다. 한국은 세계 7위의 무기수입국인 반면, 북한의 무기수입액은 미얀마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세계 64위에 불과하다.

<표-3> 남북한 무기수입 비교

화폐단위: 미국 달러, 1990년 고정가 기준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1998-2002	세계 순위
북한	300만	1억7300만	1200만	2200만	300만	2억1300만	64위
한국	9억6400만	11억1700만	7억3500만	4억	2억2900만	34억4500만	7위

출처: SIPRI, *SIPRI Yearbook 2003*((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북한에 대한 남한 군사력의 우위는 한국 국방부 자신이 사실상 시인하고 있다. 국방부는 비공식 자료에서, 2001년 현재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 180 km까지 중심전투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국방중기계획」이 끝나는 2006년경에는 한국군은 북한 300km까지 중심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이미 한국군의 군사력이 단순히 휴전선에서 북한군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북한 후방지역에 대한 공격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방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력의 수적 열세를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무기 구매보다는 전력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둔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해 왔다.

토론문: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발췌문에 덧붙인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국방부가 최근에까지도 올 7월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거하여 이것이 너무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북한 군사력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에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륙함과 전함의 숫자를 작년 2003년에 450척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290척으로 줄여 발표를 했습니다. 같은해 5월에 국방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그보다 더 절반밖에 되지 않는 130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불과 1년사이에 이와 같이 한 무기체계에 대해서 무려 2-3배 오차가 있는데 이걸 발표라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사실로 믿어라 그리고 국방비를 증액해달라고 얘기하는 국방부의 무책임성과 오만성에 대해서 저는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철기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북의 무기수입비는 미얀마의 1/3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감자료를 가지고 연구해 봤을 때 북한이 가장 어려웠을 시기, 93년에서 2002년까지 8-9년 사이에 북한이 도입한 무기체계의 액수를 검토해봤을 때 약 2억 5천 2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라하면 2002년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F-15K, 40억달러가 넘습니다. 한대에 1억 2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북한이 8년동안 도입한 무기체계 액수가 우리가 도입하기로한 F-15K 두 대값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북한 군사력이 우리에게 비해 우위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전력증강 추세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억지주장을 국방부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방부가 1990년부터 전쟁수행력에 있어서 남쪽이 월등히 우위에 있고 또 동원군사력에 있어서도 동의하고 다만 삼군 군사력에 있어서 남한이 열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사실들을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방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북한 위협론을 주장하기 보다는 기습전에 의한 북한 위협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0여일 내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고,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제는 특정지역, 전략적 지역을 북한이 기습 점령함으로 남한을 곤경에 빠트릴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북한위협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있어서, 또는 소위 게릴라 부대들에 의한 기습전, 그리고 헬기나 AM전투기 동원 이를 이용한 공중침투 그리고 고속정이나 잠수정을 이용한 해상침투 등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적이면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IISS가 발표한 남북한 군사력에 관한 책자에서 보면 명확하게 어떤 형태의 기습공격도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미국 군사전략가들의 얘기를 인용해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던 땅굴에 의한 기습공격 형태까지도 세세히 분석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불가능한지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방부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주장하는 마지막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미사일입니다.

그것이 원자력 시설에 떨어지게 되면 원자력폭탄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느냐며 무차별적으로 국민적 공포감을 주장하면서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이라는 것이 전혀 군사력의 효용가치를 즉, 전략적 피해를 줄 만큼의 효용 가치설이 안된다는 것을 이미 국방부에서 발행한 책자에서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저희와 같은 시민단체를 교육하기 위해서 ‘화생방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원형공삼오차라고 즉 쉽게 얘기해서 미사일의 정확도가 얼마나를 얘기해주는 단위입니다. 거기에 1km의 원형공삼오차의 가치를 갖는 미사일은 이미 군사적 효용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실지로 북의 미사일의 효용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킵드 B, 스킵드 c의 원형공삼오차는 이미 1k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방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거하더라도 2.35km 또는 IISS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거하더라도 2km가 넘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형태의 전면전은 말할 것도 없이 남에게 전략적 타격을 줄 수 없는 것이 북의 전력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런 사실들을 숨기면서 국민들에 대한 거짓정보와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지금 주한미군의 철수는 고사하고 감축마저도 한국의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주한미군을 붙잡기 위해서 정부가 온갖 양보와 저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력지수값치가 200억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엄청난 국방비의 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국방부 합참이 발표한 향후 2008년까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한 추가해야할 국방비로 10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력투자비를 최대한 잡아서 35%, 35조라고 얘기한다면 이 액수가 어떤 논리인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직접 지원을 시작한게 1989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16년간 직접 지원한 것이 약 5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간접지원비까지 포함한다면 국방부가 발표한 수치가 아주 들쭉날쭉하지만 그 중간지점을 잡아서 간접 지원비를 약 12억달러로 계산해 봤을 때 무려 16년 사이에 미국에게 지원한 직,간접 지원비가 250억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전력의 자산가치를 뛰어넘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주면서 이렇게 주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이면 향후 합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전력투자비 35조원을 부담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왜 우리가 바보같은 짓을 하면서 국가의 이익을 훼손시켜 가면서 주한미군에게 매달려야 합니까? 오로지 그것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북한 군사력의 우위라고 하는 그런 허구적인 논리에 포로가 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국방부가 이와 같은 허구적인 논리에 앞서서 그리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서 더 이상 국민들을 농락하고 우롱하는 그러한 정치를 벗어나서 하루빨리 군축을 통한 남북간에 통일을 해나가는 그런 국방정책과 안보정책을 펴나가시길 이 자리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되돌아보기 좌담> 지역 실무자들에게 듣는다.

지난 1년 평통사가 잘한 점과 아쉬운 점

일시: 2004년 12월 21일

장소: 서울 평통사 사무실

참석자: 변연식 서울평통사 공동대표, 오미정 사무국장, 주정숙 부천평통사 공동대표,
오혜란 인천평통사 공동대표, 김강연 사업1부장, 유한경 대전충남평통사 사무국장, 조광수

전북평통사 사무국장

사회: 오혜란 인천평통사 공동대표

정리: 부천평통사의 도움을 받아 홍보국장이 정리

사회자 오혜란 인천평통사 공동대표(이하 사회): 재 창립한지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이후의 활동을 하면서 평통사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회원들은 다른 단체에서는 언론에서는 평통사의 위상을 어떻게 보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전북평통사 사무국장(이하 조국장): 저희가 특히 올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전국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 보여지는 것은 평통사가 한국 전체운동진영 속에서 평화운동이나 평화군축운동으로서는 그 위상을 높이 갖고 있다는 것을 지역단체들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전북에서는 평화군축투쟁 뿐만아니라 이라크 파병반대, 용산관련문제, 군산미군기지 등 어떤 사업을 할 때 같이 하자고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하더라도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었을 때 저희 평통사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한경 대전충남평통사 사무국장(이하 유국장): 유일하게 대전에서 분회모임되고 있는 곳이 홍성지역모임과 대전모임이 있는데 모임을 같이 하는 회원같은 경우에는 한미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앞장서서 개척해 나가는 곳이 평통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인데 그런 일을 하는 게 평통사고 자기가 평통사 회원이고 일조할 수 있어 부족하지만 다행스럽다고 얘기를 하고요, 홍성지역에 계시는 목사님 한분은 그전에 활동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인데 자기처럼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할 수 없는 자신에게 활동할 수 공간을 만들어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부족한 만큼이라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평통사니까 함께하자고 다른 분들에게 말 해주고 싶다고 또 한편에서는 환경단체에서도 활동하는 회원분은 평소에 열심히 활동을 하긴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도 평화하면 평통사가 생각 될 수 있도록 좀 더 대중적이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이나 방법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사회: 제가 생각할 때 평화군축운동과 관련에서는 평통사가 의제를 선도한다고 생각되고요 더 바라는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는 민족민주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구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의제를 선도

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발전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과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들어가서 작년 한해 실천을 하면서 정말 이것은 잘했다. 이것은 고쳐야겠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연식 서울평통사 공동대표(이하 변대표): 홍보선전 관련해서 여전히 얘기하는 건데요 홈페이지의 이름을 시급히 하나 더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름에 숫자가 3개 들어 있는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고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10주년 행사, 후원금 모금하는데 제가 나온 광주의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조금 부끄러웠지만 누가 후원했으면 좋겠다는 솔직한 차원에서 용기를 내서 했어요. 자랑스럽죠. 대한민국의 홍근수 목사님, 문규현 신부님이 상임대표로 나온 10주년 문안 있잖아요. 그런데 올리고 나서보니 영 아닌거야. 제가 늘 불평하는 거지만 그 문안이 여전히 전혀 대중적이지 않아요. 너무너무 구태의연하고 운동권적이에요. 이걸 올려놓고 내가 다시 고쳐 쓰고 싶을 정도였어요. 50대가 된 여고 동창들이 그 홈페이지에 가면 별의별걸 다 올리고 난리데, 너무나 촌스럽고 촌스럽다고 하기엔 이상하고 뭐라고하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할까 심각했어요. 고치고 싶었어요.

사회: 도메인 같은 경우 변대표님이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고쳐지지 않은 이유는 아마 중요성이나 절박함 등이 공유가 안되어 있어 그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메인을 쓰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변대표: 그러니까 WWW를 치고 SPARK946을 치는데 946을 뭐로 기억을 하나 말이에요. spark까지는 불꽃이라고 해서 기억을 하겠지만 946이란 것이 뭔가 안된다는 거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해서 얼마나 풍부한 사진 올리고 문안도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클릭건수가 많아야 150, 200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최소한도 1,000은 되야지. 일례로 지금 최근에 뜬 전범민중재판 그게 gopeace.or.kr이에요. 이것도 정말 좋은 이름이 됐어요 클릭건수가 500은 보통이야 최근에 한게. 우리는 10년 역사를 자랑하면서 멋있는 사진 나와 있고 요즘 10주년 행사도 멋있는데 히트 쳤다는게 200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숫자 946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94년6월 창립) 일반인들이 접속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특히 평통사의 위상이 높아져서 외통부, 국방부 직원들이 출근해서 평통사, 통일뉴스정도는 기본으로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 빼고 나서 생각하면 일반대중이 얼마나 보느냐는 거지.

주정숙 부천평통사 공동대표(이하 주대표): 홈페이지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는데, 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회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너무 어렵다고요. 너무 딱딱하다고요. 들어가면 잘잘한 글씨로 자료들이 딱딱하게 채워져 있어 볼만한 여유가 안생긴다고. 어쨌든 일반인들이 검색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편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여유가 생겨야하는데 딱딱하니까 연구단체 홈페이지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대중성을 지향하면서 홈페이지 개편이 적극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김강연 인천평통사 사업1부장(이하 김부장): 인천이 150여명의 회원인데 분회결합회원인

45명 정도로 적어요.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회원들이 회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10주년 행사하면서 전화 몇통 받았는데, 우리 집에 회지가 안온다. 몇 달째. 어떻게 된거냐? 그래서 너무 미안하잖아요. 이번에 10주년행사가 있어 특집호 나가다보니 시간이 조금 걸린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그런데 특집호가 나왔어요. 제가 회지를 받아본 것 중에 솔직히 너무너무 내용도 없고 재미도 없고 10주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구요. 회원들한테 너무 미안한거예요. 거짓말한게 됐으니.

회지는 내가 생각했을 때 초면 초, 중반이면 중반 이렇게 딱딱 맞춰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들이 그대로 회지에 실리는 것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초반에는 평화퀴즈도 내고 여러 가지 재밌게 하기 위해 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회지에 인천소식지랑 같이 넣어 보내는데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회지는 조금 활동에 관심있고 적극적인 회원들은 훑어보고 관심있는 특집이 있으면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의무적으로 읽은 회원들은 거의 없어요. 다 소식지. 내가 회비를 얼마나 잘냈나? 내 이름 들어갔나? 자기 참가한 것 이런 것들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회지에서는 회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자기가 직접 나온다거나 활동하는 것이나 회원 소식들 이런 것을 궁금해하고, 지금은 지역소식을 각자 알아서 보내는 방식이잖아요. 고민은 다른 지역소식들도 같이 묶어서 해보면 다른 지역이 뭘 하는지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전국조직인데 이런 의미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주대표: 내용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부친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어렵다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저희 회원들 같은 경우엔 앞쪽에서부터 보는데 아니라 뒤쪽부터 봐요. 뒤에서부터 쪽 보다 앞쪽에는 공부해야할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보다보다 거기까지 안가고 계속 뒤에 것만 보다가 나중에 시간이 정말 많고 할일이 없을 때 앞쪽을 본다고 그러더라구요. 회지 자체의 내용이 좋아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테고 회원들처럼 기분 좋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을테고. 회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의견을 나눠 보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 그런데 그 측면과 아울러 반대측면에서도 짚어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읽기 편하고 관심이 가는 부분에 우선 손이 가고 눈이 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 위주로 회지가 나갔을 때 평통사 회원들이 그것 자체로 만족을 할 것인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오미정 서울평통사 사무국장(이하 오국장): 회지가 물론 그렇다고해서 소식지 수준이면 발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관을 할 가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관을 하려면 나중에라도 한 번 더 찾아볼 내용이 실려야 되는게 있구요. 그런데 저는요 그 내용이 하나면 된다고 생각해요. 괜찮은 글 하나 아니면 두개. 페이지로 보면 20페이지 안쪽 이런 글 하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비에케스 기사 있잖아요. 읽어서 좋기는 했는데 나중에 손이 한 번 더 갈 것 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지면들은 좀 줄이고 오히려 생생한 얘기 있잖아요. 회원들의 얘기, 본부 사무처의 얘기들이 실렸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실리기 위해서는 기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이 이야기는 재창립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그때 쉽게 어느 한 방향으로만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후에 연구소에서 예컨대 이론지가 나오면 차차 정립되어갈 문제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회지 중에 이 부분은 정말 아니었다 생각되는 부분을 위주로 얘기를 하면 회지 제작팀이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대표: 이것은 아니다까진 아닌데요. 회원들이 회지를 보면서 관점이 나름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참고글도 달려있지 않으니깐 일반인이 볼 때에는 이것이 평통사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평통사의 입장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관점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평통사의 입장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이글은 평통사의 입장과 관련이 없습니다라든지.

변대표: 이번 회지를 보면 다른 것이 없으니깐 이것저것 모아서 연구논문처럼 내놓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고정코너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무조건 교육과 재미가 함께 가야되요. 제가 늘 홍보담당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제일 좋은 모델이 한겨레21같은 경우예요. 제일 비슷하잖아요. 그것을 거의 모델로 삼아도 좋을 것 같고요 달리 머리 아플 필요가 없잖아요. 사진배치, 구성, 독자의견 등 배치를 한겨레21, 시사저널, 타임지 그런 쪽을 참고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첨부하자면 조금 사람 냄새가 나야되기 때문에 인터뷰 기사나 대담기사가 필요해요. 저같은 경우에 누가 한번쯤은 인터뷰를 하러 올 것도 같은데 전혀 안오더라구요.

전체: (웃음)

사회: 이제 주제를 바꿔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실천하면서 평통사 이것은 진짜 잘한 것 같다. 그리고 이럴 땐 너무 뿌듯했다

변대표: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무심한 듯하고 다 너무 바쁜 분들인데 사회에서 돈벌고 사느라고. 그런데 최근 만나면 평통사 참 잘해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좋아요. 운동을 떠난 분들인데도 한겨레신문 등을 보고 아는 거죠. 평통사 일을 너무 잘해. 미군문제 한가지 묻고 늘어져서 그렇게 하는거 정말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하세요.

사회: 백화점식으로 하는 것에 반감 같은게 있는 것인가 보죠?

변대표: 있죠. 다 운동의 도사들이죠. 다 아는 거죠.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한 우물을 집중적으로 파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우리를 연결해주는 미군문제 뭐라고 할까 고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해요. 저도 덩달아 올라가는데

김부장: 그것은 맞아요. 우리 플랭카드를 만들어주는 아저씨가 여기는 한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잘하고 좋은 곳 같다고. 거기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플랭카드를 많이 맞추는데요. 우리 단체를 싸게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평미군기지 문제나 각종미군기지 미군관련된 사안들을 꾸준히 열심히 하니깐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이것저것 기웃기

웃 안거리고. 그 아저씨 표현은 사람들 따라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찢금찢금 안하고 하나도 깊이 있게 한다고

오국장: 개인적으로는 평택 촛불집회 참가할 때 주민분들이 이제는 평통사라고 하면 아세요. 그런 얘기를 간부님들 말고 일반 주민들의 입에서 나올 때 흐뭇해요.

평통사 또 왔냐고? 이러면서 농담하는 것 있잖아요. 평통사가 절이 아니라며 이런 얘기하면서 이것이 친근함의 표시 아니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국회 앞 농성 때 또 뵙고 이러니까 거기서 믿음과 신뢰가 높아진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안을 가지고 투쟁을 계속해왔던 점도 있지만 주민들 속에서 믿음과 신뢰가 느껴지는 아! 좋다...

조국장: 올해에 잘한 것 하나만을 뽑으라면 용산투쟁 아니겠어요? 그것도 우리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주민분들과 결합하여 함께 한 것이 성과이고 그것이 향후에 평통사의 장기적인 조직적 발전의 토대를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변대표: 저는 잘한 점이 또 홍보 분야예요. 뭐 피켓 끝내주게 잘 만드는 거지. 색깔도 있고 손도 나오고 별의별. 그걸 제가 들고 있어가지고 과거 1년을 돌이켜보자면 세계 주요 언론에는 다 뺏겼죠. (피켓에) spark946이란 이상한 도메인도 다 나오고. 그것도 못 죽어도 다 붙어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나와서 어쩔때는 슬그머니 떼어 버려요. 미안하지만. 뉴욕타임즈에 크게 뺏겼어요. 유에스투데이에 같은 날 그게 뺏겼어요. 그 다음에 인터네셔널 헤럴드트리뷴즈에 몇 번 뺏겼지. 알자지라에 뺏겼죠. 너무 많이 뜯 정도로 기자들이 선호하는 피켓을 끝내주게 너무 잘 만들었다는 거죠. 굉장한 홍보효과예요. 도메인만 좋았으면 끝내줄 뻔 했지. 차라리 spark999, spark777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외우기 쉬우니까.

주대표: 저는 상근자들이 계속 부천역에 나가서 용산투쟁할 때 우리가 내걸었던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주요 구호가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할 것이긴 한데. 대중들을 만나면서 오미정 사무국장의 말처럼 미군이 이사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 그런 것처럼 대중들의 반응이 그렇게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투쟁의 중심고리를 잡는게 보통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지 미군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이 사안을 통해서 시민들의 입에서 스스로 (이전비용을) 안내려면 나가게 해야지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김부장: 저도 주대표님 말씀한대로 평통사가 대중투쟁을 하는데 대중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건가하는 정책적인 내용 있잖아요. 다른 어느 단체보다 평통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전문적인 근거와 내용을 갖고 있다보니 실제 투쟁을 하는데 있어서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전비용을 전액 댈 필요가 없고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발굴하고 독일사례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접근하고 설득했을 때 이전의 구호성으로 반대한다. 나가야한다. 돈 못 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대중들이 이 투쟁에 저렇게 하면 되겠네하며 나설 수 있도록 내용들을 찾고 제시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오국장: 우발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박홍식씨 사건 같은 경우엔 초기 대응을 잘해서 결과가 좋은 것

변대표: 늘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죠. 모든 미군문제 사안에서. 뭐라고 하지 선발대라고 해야 하나 특공대?

다같이: 신속기동군.

변대표: 그런 느낌이에요. 저같은 경우엔 어떨 때가 좋았냐 하면은 미군 협상 대표 롤리스가 망언을 해서 Lawless is 'lawless' 라고 해서 망언규탄 긴급기자회견 모습이 텔레비전에 보도된 적이 있었잖아요. 정세에 대응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이었죠. 신속기동군의 역할을 잘 해낸 것이죠.

그날따라 과거의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청와대에 갔다가 한집에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텔레비전 뉴스를 본거야. 자기들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 미군놈들의 행태를 규탄하는 모습. 너무너무 시원하다고 평통사가 어디야 하며 다들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 조직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나 우리가 매달 두 번씩 고정적으로 대사관 앞과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지적이나 또 잘 된 점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국장: 회원의 증가 속도가 창립을 할 때 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동안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 건가요?

사회: 재창립(2003/06) 당시 285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2004/03)에 총회 때 640명 정도였고 지금은 12월 20일 기준으로 약 900명 정도입니다. 증가의 폭 정도는 작년에 많이 늘었고 올해는 증가의 폭은 약간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 까지 약260명 정도 늘었습니다.

조국장: 그러면 허수, 그러니까 이름은 올리고 회비는 전혀 안내는 회원들도 가려져야 실제로 얼마만큼 발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조직확대를 하고 회원사업을 하는데 홍보의 중요성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빼고 생각되는 것은 재창립하고 지역평통사를 만들면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또는 쉬고 있던 사람들을 후원회비라도 내게 만들었는데 이제 바닥이 났다고 한다면 내년도 조직확대 사업에 대한 고민과 그것에 대한 냉철한 평가에 기초해서 어떻게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평택주민들의 투쟁에 우리가 결합 한다던가 또 회원들 중에서 인천이나 부천이나 전북 같은 경우 노동자 대중들의 투쟁에 결합해서 당장은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통사에 대한 인식을 전파하고 평통사를 믿음직한 단체로 다가 갈수 있도록 하는 연대사업들이 여전히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한 축으로는 기존의 다른 단체들도 인맥

을 통한 그 자체로의 회원확대는 어느 정도 속도의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지고 그다음부터는 정치적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인터넷이나 회지를 보면서 가입하는 이런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저희도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언론의 보도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하는 회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변대표: 아까 하려다 못한 이야기인데 국방부 앞 평화군축 투쟁 있잖아요. 그것을 하다보면 너무 피켓이나 그런게 거의 바닥이 났다는 느낌이 듭니다. 똑같은 것으로 되는 것 같아요. 무기사진이나 그런 쪽으로 변화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아무튼 과감하게 실생활과 비교분석하는 중년여성으로 제일 가슴에 와닿는 것은 무기문제하고 치매노인센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무기구입비로 치매노인센터를 몇 개를 세울 수 있겠다 실생활과 비교할 수 있는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양노원등

조국장: 말씀하신 것과 연동되어 생각해보니까 용산투쟁이나 미군관련투쟁의 내용이 작년보다 올해 깊이정도가 훨씬 깊어진 것 같은데 평화군축투쟁은 연구의 깊이 이론적 기초의 깊이가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얼마를 인상하면 뭐가 문제다 이상의 심도 있는 것이 안되니까 당연히 피켓도 그렇고 집회도 그렇고 단순히 정부에서 얼마 올리겠다하면 그거 올리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라면 미군문제처럼 좀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사회복지는 복지와 관련해서 세계추세면 추세와 관련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고 심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봐도 거기에 대한 즉각적 대응 수준의 구호와 내용인 것 같고요. 결의문도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 된다. 불요불급한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사회: 내용이 새로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그런 내용으로 집회가 채워지고 구체화된다면 멀리서 올라와도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부담이 되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보여지고 군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뒤로 후퇴된 측면도 오히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전체 평통사의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얘기를 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 지역에서 잘한점이 있다면?

조국장: 평화학교 잘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벌써 5회째이며 힘들어서 한번 쉬어볼까 했는데 해야 된다고 해서. 평화학교가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35명 정도 평균 참여했는데 15분이 회원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역의 목사님, 교무님, 관심 있었던 민주노동당, 주변 친구들..

유국장: 역 앞에서 했던 1인시위가 회원들도 친구들 만나면서 평통사를 알리고, 평통사회원으로서 어떤 역할도 하고. 1인시위에 참여했던 분들의 반응은 대전역 앞 횡단보도는 평통사의 밥이다. 평통사가 짝어났다. 그 정도로 회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주대표: 부천이 워낙 좁기 때문에 1인시위를 하다보면 아는 사람 1~2명이상은 꼭 만나요. 현장에 있는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부담이 크죠. 일요일 빼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44일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잘 한 것 같긴 해요. 어떤 측면이냐 하면 회원이면서 모

임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이라든지 후원회원들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1인시위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거죠. 장소를 정해놓되 시간은 참가자의 처지에 따라 자율성을 가지고 진행했어요. 참여하면서 뿌듯해들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지역연대사업에 있어서 모든 단위가 1번이상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다들 참여를 했어요. 용산투쟁의 내용을 잘 몰라요. 보조 나가면 옆에서 계속 그 얘기만 1시간 내내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활용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부장: 처음으로 평화음악회를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강사로 나갔던 노동조합의 아주머니들이나 무기장난감을 같이 했던 단위들, 후원회원들이 와서 했는데 처음 하는 것 치고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이었어요. 회원들이 주변분들과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역차원에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있고 또 중앙에서도 자체 사무처 역량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다 같이 해결해나가자고 생각되는 것들을 얘기해보죠.

유국장: 매 사안이 시작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우리 투쟁의 이유, 목표, 방침 등이 담긴 뉴스레터를 시기별로 그때그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한가지 더는 평통사 전체하고 지역하고의 관계, 중앙이 지역이고 지역이 중앙이다 이런 한 몸같이 느끼고 친밀도가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용산투쟁 관련 전국적인 캠페인을 한다고 할 때 어렵겠지만 본부에서 관련담당간부가 직접 와서 캠페인을 참여한다던가 지역에서 하는 운영위에 참여해서 설명을 해준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친밀감도 느끼고 지역의 얘기를 직접 들을수 있고

사회: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좌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성 현장 스케치_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농성현장을 찾아

박인근, 김현진

지난 12월,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여의도 국회 앞은 이미 10여 개에 달하는 농성천막들로 작은 마을이 형성된 듯했다. 그 중 ‘용산 및 LPP개정협정의 국회비준을 거부하라’는 펼침막이 인상적인 평택주민·시민사회단체 공동 농성천막을 찾아 장도정 대장과 인터뷰를 했다.

▶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평화누리통일누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 장도정 부장입니다. 지금은 평택 현지에서 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팽성읍대책위 홍보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용산협정과 LPP개정협정의 국회 비준을 막아내자’는 평택 팽성읍 주민들의 결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서울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보태서 이 자리에 천막을 치고 밤샘농성을 하고 있지요. 낮에는 평통사를 비롯한 단체 회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캠페인과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밤에는 3명 정도가 천막에서 잠을 자며 농성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 콘크리트 바닥에 합판과 스티로폴을 깔았지만 올라오는 냉기만큼은 막을 수 없더군요. 하루하루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 농성 하루 일과를 소개해주세요.

▷ 오전 6시에 일어나 7시에 국가보안법 철폐 실천단과 함께 신촌, 서울역 등 시내로 나가 캠페인을 하고, 9시에 아침식사, 10시 30분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합니다. 12시에는 여의도역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오후 3시부터는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을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저녁 8시까지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밤 9시, 천막에 모여 총화를 하고 하루 일과를 정리합니다.

▶ 농성을 통해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요?

▷ 하루 종일 주민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추위와 싸워야 하고 불편한 잠자리에서 잠을 설치야 했지만, 진정 민중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마음으로 통하는 계기가 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평통사 회원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만약 회원들이 없었더라면 농성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팽성 주민들은 아직도 술자리나 두런두런 모이는 자리만 있으면 국회 앞 농성을 떠올리고 평통사 회원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 앞으로 투쟁계획을 말씀해주세요.

▷ 만약 국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용산협정과 LPP개정협정을 통과시킨다면 주민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것입니다. 주민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땅을 지

키기 위한 촛불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평택역에서 평택대책위를 중심으로 촛불 행사를 열고, 안중에서는 농민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새해는 더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은 결과가 어떻든 절대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 한 평도 내어 줄 수 없다’는 각오가 더욱 단단해질 뿐이죠.

▶ ‘평화누리통일누리’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평택주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뜨거운 지지와 연대입니다. 이 투쟁은 주민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투쟁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촛불행사에도 오시고, 격려의 글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주민들과 평통사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는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인터뷰 · 정리 / 김현진

평통사 10년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회원들입니다.

-평통사 창립 10주년 기념 및 후원의 밤을 마치고-

총무국장 박석분

평통사 회원과 가족 여러분, 평통사를 지켜보며 지지하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 열린 창립 10주년 및 후원의 밤 행사는 우리 회원 100여 명을 비롯하여 외부에서 오신 손님 등 연인원 35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행사는 평통사 1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영상 상영과 두 분 상임대표님의 인사말씀, 문정현 신부님의 축사, 전북평통사와 향린교회, 임종철 공동대표와 고영대 전 사무처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 그리고 축하공연과 축하연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은 참가하신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평통사 열 돌 생일을 축하하고 앞날을 축복해주셔서 참으로 즐겁고 기쁜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날 만큼은 온갖 시름과 걱정을 잊고 평통사를 향한 많은 분들의 사랑을 한껏 느끼며 행복했습니다. 이는 모두 그 동안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며 각자의 처지에서 형편에 맞게 평통사의 실천에 함께 해 온 회원들의 정성과 노력 덕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립 이래 처음 가진 후원의 밤을 겸하여 열린 이 날 행사를 전후하여 지금까지 수천만 원에 달하는 후원기금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그 동안 활동하느라 진 빚을 갚고, 앞으로 더욱 기동성 있게 활동하는 데 필요한 차량 구입에 쓸 계획입니다. IMF 때가 차라리 더 나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경제형편에도 기꺼이 성금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가는 말에 채찍질하듯, 더 열심히 분발하라는 뜻으로 알고 귀하게 아끼며 잘 쓰겠습니다.

이 날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겨준 인천평통사 유정섭 님, 무대와 행사장을 장식한 선전물을 만들고 행사 진행을 위해 잔손가는 많은 일들을 말없이 도와준 서울과 인천의 회원들, 동영상을 만드느라 밤잠 못자고 수고한 김현진 홍보부장과 서울평통사 김균열 님, 좋은 공연을 해주신 안치환 홍보대사와 향린교회 예향, 어린이 성가대, 전경옥, 박창근 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내내 마음에 걸렸던 일은, 회원들이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회원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아 토, 일요일로 정하기 어려워 평일 저녁으로 한 것이 지방의 회원들과 직장에 다니는 회원들을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후원의 밤을 겸하여 열린 행사라 공연자들의 시간까지 고려하여 일정을 정하다보니 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생일잔치가 되지 못한 점, 늦게나마 죄송하고 해량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연락을 미처 드리지 못했는데도 소식을 보고 달려오신 유종순 전 사무국장과 인사를 나누며 지금은 평통사 활동을 하지 못하시고 연락도 끊어졌지만 그 동안 평통사에 몸담았던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오실 수 있게 한겨레신문에 광고라도 낼 걸 하는 후회도 지나고 나서야 마음에 짐이 되었습니다.

행사를 치르면서 정말 평통사가 많이 커졌구나 실감했습니다. 200석이 채 안 되는 장소

를 계약하면서도 이 자리를 다 채울 수 있을까 소심하게 생각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평통사가 젊어지고 더욱 창조적이 되었으며 더욱 힘이 세어졌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재창립 전 평통사의 그늘 아래 있었던 거죠.

일천 명에 육박하는 회원들의 조직으로 발전한 평통사! 회원들의 힘을 믿고, 그 힘에 의지하여 일해나가면 10년 후인 창립 20주년에는 10만 명 회원과 함께 기념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란 가슴벅찬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리 모두 그 10년의 첫 출발이 되는 새해를 힘차게 열어제깁시다!

이 글은 지난 11월 23일 ‘평통사 창립 10주년 기념 및 후원의 밤’ 행사에 문정현 신부님의 축하말씀을 지면으로 옮긴 것입니다. 구어체의 문체를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선에서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 편집부

창립 10주년 축하말씀

문정현 평화바람 대표

말을 쓸려고 이리저리 메모를 했었는데 길바닥에서 살다보니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하는지 막막하긴한데 이거 한가지. 참 10년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매향리, 저 파주, 국방부, 미대사관, 미8군.

정말 경찰들에 짓이겨가며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대개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척하는데, 평통사는 하는 척하지 않고 감옥에 간 분이 몇 분이며, 벌금은.....

그런데 벌금. 벌금은요 징역살이보다 더 나빠. 빈털터리들인데 100만원은 하다못해 50만원이라도 낼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낼 때는 외국에 한번 나갈 때입니다.

저는 평통사 때문에 광화문을 떠나서 전국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평통사가 없었으면 광화문을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을 다니어 보니까 평화평화라고 말은 많은데 평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깨달은 건 평화는 절대로 남의 나라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평화 안줍니다. 중국 평화 안줍니다. 일본 평화 안줍니다.

평화는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서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데 무지무지 싸워서 뒤통말똥할 만큼 싸워서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정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슨 국민의 정부다 참여정부다 내세우지만 속셈은 과거 독재정권 그대로입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들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매향리 주민들을 무시해. 그냥 깔아뭉개버리지 않았습니까? 폭탄이 떨어져 담이 무너지고 유리창이 다 깨지는 피해를 봤는데 무시를 하는거죠. 아무 피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입니다.

저 작년에 떠들썩했던 부안. 군민들 싸구리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뭐 한번 물어를 봤습니까? 지그들끼리 핵폐기장을 유지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군민들이 군수한테 가서 그거 신청할꺼냐? 신청한 그 전날까지도 절대로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싸구리 무시해버리고 신청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나서 노무현. 노무현? 군민이 뽑아준 군수가 군민을 배신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용기를 주는 전화를 해? 똑같은 놈이지. 똑같은 놈이지.

그래서 부안의 평화를 군수가 줄 겁니까? 도지사가 줄 겁니까? 대통령이 줄 겁니까?

다 똑같은 놈들. 군민들이 한데 뭉쳐서 힘이 되어야만 그때에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미국도 이 나라 독재정권이 국민을 무시하듯이 우리 같이 쪼그마한 나라 역시 무시합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번번이 당하더라구요. 그렇니까 우리가 기대를 해서 뽑았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미국놈들 앞에서 싹싹 빌더라구.

그건 뭐 김영삼대통령도, 김대중대통령도, 지금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고요? 대통령이 절대로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신 것이 우리들입니다. 평통사입니다.

목이 메이는데..... 참 고생했습니다. 우리 참 기억하지만, 이런 흑한에 그 열린시민공원에서 이회호여사가 지나간다고 경찰놈들이 눈이 확뒤집혀가지고 그냥 우리를 다 실어다가 마장동이다, 저 난지도에다, 저 김포공항에다 그냥 그것도 한꺼번에 내려주면 위로라도 되지 하나 싹하나씩 내려서말이야.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있단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말길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10년동안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저희들이 10년동안 해온 것이 옹크리고 있던 수구 보수세력들을 밖으로 끄집어 낸 것입니다. 그 숫자가 우리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규격화되고 힘은 없습니다만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었죠. 이거 보통일 아니죠.

권력이 뒤에 있죠. 미국이 뒤에 있죠. 간단히 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절대로 간단히 볼 일이 아닙니다.

아마 죽을 수 있죠. 아니 그럴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해서 저는 그 죽을 사람 10만명을 모집합니다.

보수세력들이 꼭 광화문을 메우고 미국 놈들이 탱크로 위협해도 그 앞에 딱 나서서 버틸수 있는 10만명.

그래도 우리가 발랑 누워서 죽일테면 죽이고 가라고 이렇게 될 때 미국이 우리를 탱크로 밀고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밀고 갑니다. 이라크에서 하는 것보고 북에다 하는 것보고 우리 6.25전쟁 때 하는 것 봤을 때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량을 해보니까 과거 어느 때에도 볼 수 없었던 의식이 충만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열심히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한자리에 모임 기회가 없었던 것뿐입니다.

하물며 평통사가 앞서서 죽었을 때 그 피가 철철 흐를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단 하나의 길입니다.

딱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평통사가 앞장서서 제일먼저 죽어야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설게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피가 철철 흐를 때 불혼간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통사가 10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앞으로의 처절한 그러나 영원한 길로 가는 평화의 길로 가는 죽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크게 박수쳐서 빨리 죽어달라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진짜 빈말이 아닙니다.

여기 평통사 실무자들이요

돈도 없어서 빼삭 마르고 병 생기고 내가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는데 생긴 건 병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일해왔습니다.

그렇게 일해온 사람들이 제일 앞장설 수 있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남자, 그 시작 이야기 -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김현미 서울평통사 회원, 평화통일연구소 자원활동가

인생은 길이다.

그 혼한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도 인생과 지상에 놓여있는 길은 너무나도 닳아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항상 서성댄다.

한번 선택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에 신중해야 하고 선택한 길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39년 동안 불꽃처럼 살다 간 남자, 체 게바라는 1928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 1967년 볼리비아 정글에서 미국 CIA가 지휘하는 정부군에 생포되어 총살될 때까지 의사, 게릴라 전술가, 쿠바의 정치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 평생 실천하는 혁명가로 살았다. 4년 전 바람이 많이 불던 날, 두툼한 책으로 기쁘게 만났던 체를 2004년 12월 대학로의 영화관에서 다시 만났다.

브라질 감독 월터 살레스는 멕시코의 유망한 배우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을 체 게바라로 내세워 아름다운 로드무비 영화를 만들어냈다. 1951년 23살의 의대생 체 게바라는 친구 알베르토 그라나다와 함께 '포데로사'로 불리는 낡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아르헨티나를 출발하여 안데스 산맥을 가로지르고 칠레 해안을 따라 사막을 건너, 아마존까지 약 8천 킬로미터를 4개월 만에 다녀오겠다는 계획으로 여행을 시작한다. 실제 이 여행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를 거쳐 아르헨티나로 돌아오는 8개월의 긴 여행이 된다. 월터 살레스는 상업적 영화가 가질 법한 영화적인 극적 장치나 어떠한 꾸밈도 없이 체 게바라와 알베르토가 썼던 여행기에 바탕하여 그들의 여정을 좇으며 남미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아냈다.

녹색의 푸른 화면이 참 시원했다. 이제는 모두의 영웅이 된 혁명가를 생각하고 영화를 보러 온 이들에게는 그 밋밋함이 실망일 수 있겠으나 혁명가가 되기 이전 이제 막 자신의 길을 찾아가려는 풋풋한 젊은 청년의 시작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어 좋았다. 튀지 않는 잔잔한 남미음악에 몸을 맡기다 보면 나도 낡은 모터사이클에 앉아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었다.

가난하게 착취당하며 살아가는 토착민들, 이념 때문에 탄광으로 떠돌아야 하는 사람들, 잉카문명의 마지막 유적지 등 이민족에 침략당하고 파괴된 남미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청년 에르네스토 게바라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평범한 의사의 길이 아님을 깨달아간다. **'이번 여행은 내 생각 이상으로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난, 더 이상 내가 아니다..'**

혁명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던 셈이다. 거기에서 영화는 끝이 난다. 무언가 아직도 할 말이 많은 듯한데 툭 하고 끝나버린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지금은 80대가 된 알베르토의 주름진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웠을 때 나는 울컥 눈물이 났다. 삶이 소중하고, 인간이 소중하다. 그리고 그를 위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지금은 없는 그 사람들이 생각났다.

울 겨울, 홀로 조용한 여행을 떠나야겠다.

안동평통사를 찾아

안동평통사 강석주 사무국장

1. 안동평통사는 지난 7월 창립되었는데 창립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에는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가보안법철폐시민연대가 있었습니다. 연대체가 그러하듯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회의와 절차가 많은 반면 실질적인 일에는 책임자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에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실무진들로 구성된 단체 일명 평화와 통일을 여는 안동시민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전국적인 연대가 필요하고 그중 평통사의 명성을 익히 들어오던 차에 안동평통사로 재창립하게 되었습니다.

2. 창립과정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안동시민모임이란 이름을 초대회장이신 김헌택선생님이 지으셨는데 1년 후 안동평통사로 재 창립한 후에서야 우리평통사의 이름이 좋아서 조금 도용하였다고 실토히시는데 어찌면 처음부터 한식구가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3. 안동평통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이신 김창환선생님도 경북에서 전교조 초대지부장을 지내시면서 일찍이 해직, 복직하시고 안동시민단체를 대표하고 계십니다. 직전회장이신 김헌택선생님께서도 전교조활동 뿐만 아니라 천주교정평사무국장일도 겸하고 계십니다. 정책의장이신 민덕기 변호사님도 경북북부지역의 각종 단체 변론을 도맡아 하다시피 하시고 계십니다. 가톨릭농민회 총무이신 강성중님과 안동대 학생회장 출신의 박명배, 가톨릭 상지대 학생회장 출신의 피재현등 다 열거 할 순 없으나 모두가 한 칼씩 하십니다.

4. 안동평통사의 활동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남은 숨통를 끊는 일을 할 것입니다. 2005년은 국보법이 없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지역에서나마 힘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힘이 남는다면 회원확보와 평통사 명성에 걸맞는 일들을 해나감으로서 진정한 지역 평통사로서의 위치를 확보 해 갈 것입니다.

5 안동평통사의 자랑을 하신다면?

안동평통사 회원들은 평통사일 뿐 아니라 각 단체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각 단체와 연대함이 매우 수월합니다. 특히 회장님은 안동시민단체의 대표로서 민주노총, 농민회, 민주노동당 등이 함께하는 안동 공동투쟁본부의 공동회장직도 겸하고 계시기에 더욱 힘이 실립니다.

6. 2004년 한해를 돌아보며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보법이 아직도 질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우리가 부족하여 그러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박물관으로 꼭 갈 것 같으니 조금 더 힘을 낼까 합니다

7. 2005년 새해 포부라고 할까요. 계획이 있다면?
좀 더 끈끈한 조직으로 거듭나서 회원 배가운동과 그에 걸맞는 활동성 배가를 이루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8. 평통사 회원들과 회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평통사는 한반도의 평화 뿐 아니라 미국이 저질러 놓은 여러 가지 나쁜 일들과 싸우는 인류의 평화전사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뿐 아니라 미국이 제국주의를 포기하는 그날까지 싸워이깁시다. 아자.아자.

